

소록도 교회설립 100주년 기념예배
2022. 10. 8.(토) 11:00 소록도 중앙교회 대예배실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군의회 의장 이재학입니다.

오늘 「소록도 교회설립 100주년」을 맞아 이렇게 축하예배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영민 군수님과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김선호 목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김화진 국민의 힘 도당위원장님, 오동창 국립소록도 병원 원장님, 그리고 고흥군의회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록도는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의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고흥 8경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러나 소록도의 역사는 한반도의 근현대사와 함께 슬픔과 애환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소록도에서의 기독교 역사 또한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 왔으나, 사랑과 희망의 힘으로 100년의 시간을 버텨, 지금까지도 주민들과 환우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뚝뚝 걸어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우님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썽 오늘 교회설립 100주년 행사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백년, 천년을 면면히 이어가 소록도 주민들과 환우 여러분들께 영원히 사랑과 희망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하신 분들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